

한울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6 No. 4 2016. 12. 25

편집: 홍보 위원회



* 지난 60 년간의 교회사진을 모아 모자이크로 만든 스테인더 글라스의 예수님 상

2016
12

쉐마의 밤
부서소식
새교우 환영반

당회소식
교우의 글
화보

위원회소식
행사 및 광고

권두언

이영길 목사

“네 지경을 넓히리니”(출 34:24)

올해 표어를 이 본문으로 삼고 신년설교를 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감을 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지경이 넓혀졌는지?”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인간이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아니 인간이 정해 놓았다기 보다는 자연의 주기를 가지고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1 년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하루 등... 사실 지금은 12 월, 자연의 주기를 따라 1 년의 마지막 달인 것입니다. 한편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의 주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표어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은 결코 크로노스에 매여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어를 이루시는 시간은 크로노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에 의한 것일 줄 압니다. 우리는 1 년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외쳤습니다.

“네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의 외침이 이루어질 카이로스를 기다립니다.

Editors:

김한나

박신영

정은아

윤경문 목사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쉐마의 밤 : 11 월 26 일- “추수감사절/새신자 가정 초대 특집”



이번 쉐마의 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히 2015~'16 새교우 환영반을 수료하신 새가족들을 초대하여 꾸며졌습니다. 추수감사절 Dinner도 온 교우들과 함께 하고, 새교우 가정들이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여서 한 가족이 됨을 느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위원회, 교인 1, 2부 위원회의 수고로, 기존 교우님들 가정과 새가정을 matching해서, 집에 초대하여, 동요를 함께 부르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도 가지며, 쉼마의 밤을 준비하였습니다.



쉼마의 밤에서 새교우 가정들은 두 팀(“곰팀”, “개구리 팀”)으로 나뉘어서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는 어린이 동요를 합창하여 주었습니다 (동요 편곡: 정윤원, 이해승). “곰세마리 팀”에는 박송영/김소연(초대가정: 최정열/허경희), 신준섭/박예리(초대가정: 이문영/김춘미), 신정욱/최윤희(초대가정: 차민호/신민영), 정진영/황수진(초대가정: 노현철/노현미)이 참여하여 “개구리 합창” 동요를 불렀습니다. 곰팀에는 임상균/오주경(초대: 정하균/곽서영), 김충식/권지숙, 이해경(초대: 정광근/이동화), 최진국/이정은(초대: 이재익/김명은), 신호식/김정현(초대: 이성숙) 가정이 “곰세마리 & 고기잡이” 동요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참여를 못하신 분들 중에는 사진을 보내주셔서 사진들로 새교우들의 모습을 만나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또한 남선교회에서 마련한 장학금 “KCB Leadership Award”을 교육 2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승집사의 특송이 있었고, 이어서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삼세대 촛대”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는 가족, 이웃, 그리고 단기선교팀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쉐마의 밤은 3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하나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두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찬양을 드리고,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특별 순서도 가지고, 말씀으로 도전 받으며, 가족과 이웃, 선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집니다. 세대 간의 간격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회 소식

지난 11 월 당회에서는 전교인 하기수양회의 주기에 대해 논의를 했고,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전교인 수양회를 2 년 주기로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12 월 당회에서는 2017 년 공동의회에 추천할 신임 서리집사와 권사 추천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많은 논의 끝에 2017 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 위원회 보고 요약

12 월 당회에서 건물관리위원회와 기획관리위원회는 교회지붕수리와 기타 교회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고 (아래 소식 참조), 교육 2 부 위원회는 청년들의 식사를 위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과 그를 위해 그 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교우들에게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교인 1 부 위원회는 2016 년 5 회에 걸친 새교우 환영반 교육 결산,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아래에 자세히 실린 미국 원주민 단기선교에 대해 보고를 했고 (아래 소식 참조),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니카라구아의 상황과 그 곳의 선교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동홍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홍보위원회는 예배때 설교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특별히 상록기도회 분들을 위해 예배예술회위원회와 함께 준비하는 Assistive Listening Systems 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각 위원회 소식

건물관리 위원회

위원장 엄재관 장로

“전화위복 (轉禍爲福)”



Paul C. Ha @paulha8 · 4 Aug 2015
Massive hail storm #Brookline

(블로거가 올린 Brookline 에 내린 우박)

올 한 해 교회 건물관리에 굶직한 2 개의 숙원 사업중 한가지는 교회 지붕 수리였습니다. 비바람만 불면 지붕의 roof tile 이 뜯겨져 교회 주위에 쌓이는 것을 볼 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본당과 친교실 천정에서 물이 썰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지붕면적이 넓고 이미 지난번 한번 덧씌우기 공사를 한 터라 모든 낡은 지붕을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하는 큰 공사여서, 이 일로 당회에서도 여러번 회의했고, 큰 공사비로 인하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작년 여름 8 월 4 일 오후 Brookline 지역에 내린 우박의 피해는 보험처리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한 결과, 우박의 충격으로 손상을 입은 곳이 여러군데 발견되었고, 보험규정에 따라 공사비 전액이 보험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 월초에 지붕과 기타 수리를 했는데, 약 20 만불가량의 비용이 모두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낡은 지붕이 우박으로 더 손상을 입었는데, 오히려 우박이 우리 교회에는 a blessing in disguise 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지붕공사를 담당한 씨니킴씨, 기획관리위원회의 이정규 장로가 함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1. 뉴멕시코 Native Americans 단기 선교 파송 (12/25/2016 - 1/2/2017)

올해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뉴멕시코 Albuquerque 지역 나바호 아메리칸 원주민 지역에 단기 선교를 12 월 25 일부터 1 월 2 일까지 가집니다. 이덕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선교센터에 가서 그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Winter Camp 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지 중심으로, 원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함께 배우고, 서로 사랑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오카리나 연주, 요리, 성경공부 등...)을 준비하여 단기 선교를 가집니다.

12/18 일 뉴멕시코 단기선교 파송예배를 드렸고, 25 일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먼저, 미국 원주민 선교를 위한 열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선교를 위하여 버섯 바자에 참여해 주신 많은 교우님들과 선교비 현금으로 후원하여 주신 분들, 남선교회분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선교팀 멤버: 이선영 장로, 이유택 장로, 이혜원 집사, 조나현(Robin) 자매, 정윤원 형제, 이주비 자매(고등학생) (이상 6 명).

2.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 “Not So Heavy A Christmas”

12월 17 일(토) 국내선교위원회에서 부르클라인 지역선교를 위하여 베풀고 있는 음악회, Oasis Café Music Night 이 열렸습니다. 이번 오아시스에서는 청년 1 부, 2 부 청년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보스틴 지역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Not So Heavy A Christmas”란 주제로 성탄 계절을 맞이하여 클래식 음악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멋진 음악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연주에 참여한 청년들은 김지은, 박민협, 홍지영(청년 1 부), 박초롱(기획), 정윤원, 조영지(청년 2 부)로, William Bolcom 의 “The Graceful Ghost Rag for Violin and Piano” 곡 등과 “A Charlie Brown Christmas (1965) 등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들려주신 청년들, 행사에 참여하여 응원하여 주신 교우님들, 그리고 이 행사를 아름답게 치러내신 국내선교위원회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3 부 전교인 신앙강좌

위원장 권복태 장로 / 부위원장 방경남 집사



지난 12 월 11 일 (일) 교육 3 부는 최지상 목사님을 강사로, 하반기 전교인 대상 신앙강좌를 가졌습니다. 강좌를 통하여 최 지상 목사님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높은 지적 수준 및 이성적 판단이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조그만 고난과 박해에도 인내하지 못하는 은혜의 불감증에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반복 연단하여 습관화 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년 말의 소그룹 성경공부반 전체의 Sharing 을 겸한 이 모임에서는 금년도 성경을 완독한 17 명에게 작은 선물이 나누어 졌는데 해마다 성경을 완독하는 분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2017 년에는 우리 주위의 성경 완독자들로 인한 선한 영향력으로 더욱 많은 성경 완독자가 나타나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부터 (금요 성경공부반: 노시일 집사 인도)이 개설되어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당일 인용구절)”

부서소식

권사회

회장 김용희 권사



2016년도 권사회 정기총회
2-16, 11, 13



살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좋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권사회는 모든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교우님들의 기도의 힘이 필요한 곳에 또는 요청이 있을 때 중보 기도로, 각 부서에서 눈에 띄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께 한끼 식사 대접으로, 사랑과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 만찬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음식으로, 후원금으로, 봉사로



권사회 주관
교역자 가족 오찬 접대
2016. 12. 4.

수고하신 권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구석 구석을 돌아보며 필요한 곳에 어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청년 1 부

담당 교역자 이요한 목사



가을 학기 금요찬양집회 및 성경공부의 2016 년 주제성구는 창세기 28 장 15 절이며, “오직 주님께 이끌려 Driven by the Lord!”가 표어입니다. 가을 새학기를 맞이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위해, 그룹별 성경공부 시간을 금요찬양집회 이후로 옮겼습니다. 성경공부는 [말씀과 함께: 잠언]과 여호수아서로, 금요찬양집회에서는 “주님을 기념하라”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은 담당교역자의 성경특강, 청년 1 부 지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 만한 물가, 교회 내의 신앙의 선배들을 초대해서 특강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이브 예배, 성탄주일 모임, 송구영신예배, 신년주일 모임을 각각 가지게 됩니다. 청년 1 부 내의 펠로우십을 나누는 것은 물론, 주위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친절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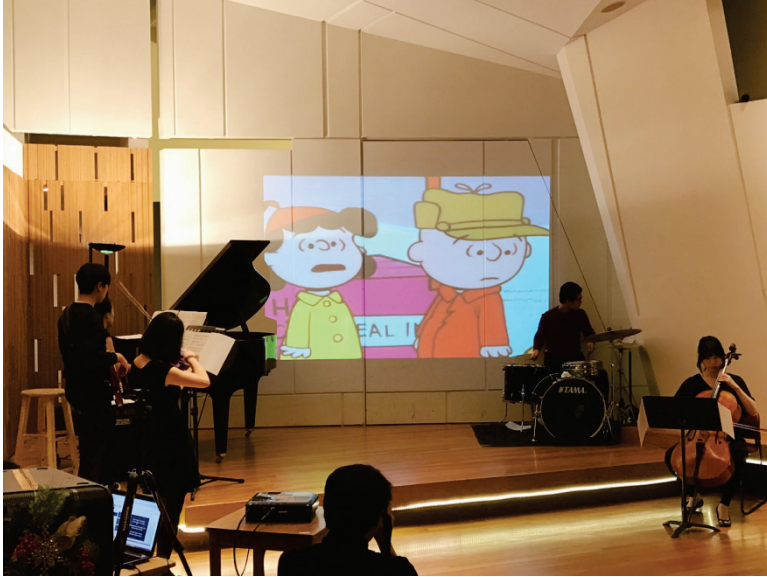
2017 년 새해 1 월에는 새로운 주제에 맞춰, 주일 성경특강과 금요찬양집회 주제말씀을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나누게 됩니다. 2 월 두 번째 주 금요일~토요일(1 박 2 일)에는 봄학기 공동체 훈련(장소: NH 한국학교)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 2 부

담당 교역자 윤경문 목사 / 부교역자 김수영 전도사

11/13 일(주일) 청년 2 부 정기모임에서는 세미나, “Sharing Our Faith Series 1: “Redeeming my work for God” 을 가졌습니다 (Presenter: 곽일범, 박정파, 박초롱). 자신들의 소명과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쓸지 고민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청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11/24(목)에는 Thanksgiving 모임을 곽일범 교우집에서 가지고 교제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17 일에는 국내선교 주관 이웃 주민을 위한 Oasis Café Music Night 무대를 청년 1, 2 부가 함께 “Not So Heavy A Christmas”-클래식 뮤직과 크리스마스 음악을 중심으로 꾸몄습니다. 프로그램은 박초롱 자매가 기획하고, 정운원, 조영지, 홍지영, 박민협, 김지은 외 음악인이 연주했습니다. 또한 12/18 일에는 임원단이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탄절/연말행사를 가졌습니다.





청년 2 부는 정기적으로 금요 찬양예배와 주일 성경공부(사도행전) 모임을 통해 주님의 공동체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2017 년도에 있을 수련회는 2017/3/31-4/2 로 날짜를 정하고 계획하고 있고, 기본적인 개념 (신앙, 구원)에 대한 재정립,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시각,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사에 대한 주제,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역사, 의미, 현재 교회/크리스찬들이 방향, 돈에 대한 크리스찬의 시각/청지기로서의 삶 등

다양한 주제들을 고려하여 강사 선정을 하기 위해 임원회를 갖고 의논할 예정입니다.

부부청년부

담당 교역자 김건철 목사

부부청년부에서는 11 월 13 일 부부청년부 헌신예배 (강사: 이순우 목사, 퀸시영생교회)와 부청 정기 총회 및 신임 회장단 선출이 있었으며, 회장: 신정욱/최윤희 교우, 부회장: 최정규/심진희 집사, 총무: 신준섭/박예리 교우들이 선출되었습니다.

11 월 27 일에는 부청 감사절 모임을 가지고 출타한 회원들의 20 여 가정이 참여하여 음식을 나누고 한해동안 감사한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교육 2 부와 남선교회 연합으로 구성된 장학기금 KCB Young Christian Leadership Award 장학금 수여가 12 월 3 일에 있었습니다.

새 회장단은 12 월 4 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12 월 18 일 신년 준비를 위한 신 임원단 워크숍을 했고, 12 월 30 일에 교회에서 성탄 기념 및 연말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소식

12 월 17 일(토) 예정되었던 Fellowship House 를 날씨 관계로 다음날인 12/18 일날 친교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로 풍성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의 글

조금씩 다가가기

이재혁 / 이지나 (북서구역)

세상에는 정말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그게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물론 저희 두 딸 들마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교회라는 곳에는 발을 디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 앞에는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매주 일요일이면 아파트 단지 앞은 교회 신도들의 차량 때문에 엄청난 교통정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되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바쁘게 일하고 나서 휴일에 그냥 집에서 쉬거나 어디 놀러라도 다니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들 좋아서 다니는 거면 주변 사람 피해 안 주게 대중교통 타고 다니지 왜 다들 저렇게 차를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며 아내에게 투덜댔었고, 가끔은 주차요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길 좀 비켜달라고 심한 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가끔씩 언론에 거론되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추악한 비리를 보면서도 그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볼 때도 그랬고, 타 종교에 대해 배타성이 강한 기독교에 대해 늘 곱지 않은 시선과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혐오와 짜증에는 제사를 중요시 하는 집안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 잘 모시는 제사가 인간의 가장 근본 도리가 된다는 집안 어른들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슴에 품고 살았던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한 불교 신자이신 부모님 덕분에 절에 다니는 일이 익숙했었고, 한국의 부모님 덕에는 작은 법당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아버님은 새벽마다 불상 앞에 향을 피우고 백 팔 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을 신기하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천인가?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할 만큼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한참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저희에겐 참 즐겁고 소중한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희 가족이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날의 묘한 기분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할 줄만 알고 긴장했었는데, 막상 교회에 나와보니 참 이상하게도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예배당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스테인드 글라스의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참 포근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딱 세 번만 다녀보자고 했는데, 막상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교회는 어느새 저희 가족의 삶에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오고 가며 얼굴을 알게 된 여러 교인 분들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 잡아 주시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말씀이 있다고 설교 영상을 추천해 주신 분도 계시고, 찬양을 들어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저희의 무지로 인한 무례한 표현과 이상한 질문에도 늘 친절하게 웃으며 답해 주시는 구역식구 분들이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인가, 교회에 가는 주일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부부청년부 헌신예배 시간에 부부청년부 가족들이 조그마한 아기들을 하나 둘씩 안고 나와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 그 가족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뒤늦은 나이에, 이렇게 늦게라도 하나님 곁으로 다가설 수 있게 저희 가족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삶에 너무나 몰들어서 온갖 추악한 잘못을 마구 저지르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게 잘 사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들 헐뜯고 욕하며 살면서도 심지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 혼자 잘난 맛에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비참해집니다.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예 떠올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로만 알고 살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걸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세상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던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 걸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보잘것없이 미약한 신앙이라 아직은 많은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도 걱정도 되고,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쉽게 포기하게 될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다른 분들처럼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곁에서 많이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행사 및 광고

집사회 총회 / 정기 제직회 소식

지난 12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정기 제직회 및 집사회 총회로 모였습니다. 제직들이 각 가정에서 준비한 푸짐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집사회 총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집사회 활동을 살피고, 또 2017년을 위해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사회 총회후 찬양의 시간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영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네 지경을 넓히리니'라는 표어로 시작한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순서는 김진홍 집사님이 준비한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는 동영상과 함께 보면서 보스톤한인 교회의 1년을 살펴본 것을 시작으로 당회서기 한승희 장로님의 보고와 여러 부서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감사했던 것은 비용때문에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교회 지붕수리가 뜻밖의 우박으로 20만불에 가까운 수리비가 보험처리가 되면서 교회재정에 큰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기 제직회와 집사회 총회에 좀 더 많은 젊은 집사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2016년 한 해 동안 이름없이, 소리없이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모든 제직들 있었기에 올 한 해도 풍성한 보스톤한인교회가 되었으리라 확신해 봅니다.

2017년 각 부서 신입 임원진

집사회: 회장 손영권 집사, 총무 이재익 집사

여선교회 (마리아): 회장 전현임 집사, 부회장 이성숙 집사, 총무 한정인 집사, 서기 김희현 집사

여선교회 (에스터): 회장 안은신 집사, 부회장 최정우 집사, 회계 채주영 집사, 서기 정현아 집사

남선교회: 회장 지훈 집사, 서기 홍성일 집사, 총무 정광근 집사, 회계 이유택 장로

부부청년부: 회장 신정욱/최윤희 교우, 부회장 최정규/심진희 집사, 총무 신준섭/박예리 교우

권사회: 회장 김정립 권사, 부회장 김한나 권사, 회계 신미송 권사, 서기 김영미 권사

상록회: 회장 김형범 장로, 부회장 정명상 집사, 총무 이숙재 권사

청년 1부 (5월 총회): 회장 홍지영 교우, 부회장 김지은 교우

청년 2부 (5월 총회): 회장 박명우 교우, 부회장 조영지 교우, 총무 곽일범 교우

새교우 환영반 소식

2016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45명의 새교우들이 새교우 환영반을 수료하여 현재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새교우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합니다.

10월 새교우 환영반

교인 1부 위원회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2016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주에 걸쳐 새교우들을 위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자기소개 및 신앙 간증의 시간을, 둘째 주에는 '말씀과 함께' 성경공부 교재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PCUSA)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 교육이 마친 후, 권복태/서명숙 장로님 댁에서 10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들의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새교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장로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료자는 강형민, 고혁성, 김충식/권지숙, 이해경, 정신영/황수진, 이해경, 정선재 교우입니다.

강형민 교우는 지난 7월에 사업차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대학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Virginia에 살고 있으며, 현재 2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해경 교우는 2006년에 Atlanta로 이주하셨고, 두 자녀(신아, 지운)의 학업과 직장이 보스턴으로 정해짐에 따라 함께 오시게 되었습니다. 북동 구역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영/황수진 가정은 하연(2살) 하을(3개월)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화학/화학교육을 전공한 정신영 교우가 MGH에서 postdoctoral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현재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혁성 교우는 5년 전에 보스턴으로 오셨습니다. 현재 Dental lab을 운영 중이시고, 민재(14살), 다현(11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중앙 4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충식/권지숙 가정은 중앙 4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며, 12살 경찬, 11살 경건, 7살 주은,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김충식 교우는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일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고, 현재는 보스턴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지숙 교우는 성악을 전공하였고, 학창시절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일본에서 지휘자로 봉사했습니다. 현재 2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선재 교우는 어린 시절에 보스턴에 잠시 거주한 적이 있었고, 한국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하버드대학(HSPH)에서 정신역학 (Psychodynamics)을 연구하기 위해 보스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녀 예안(4살)이가 있고, 남편은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중앙 3 구역 소속입니다.

11 월 새교우 환영반

2016년 11월 13일 부터 11월 27일, 3주에 걸쳐 새교우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자기소개 및 신앙 간증의 시간을, 둘째 주에는 ‘말씀과 함께’ 성경공부 교재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PCUSA)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 교육이 마친 후, 한문수/윤선미 장로님 댁에서 11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들의 환영 만찬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새교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장로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료자는 광동민/정선해, 김정연/윤병준, 안은진, 김영란, 원유건/양지연 교우님입니다.

광동민/정선해 교우 가정. 광동민 교우는 Boston University에서 postdoctoral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어 미네소타에서 지난 10월에 보스턴으로 오셨습니다. 정선해 교우는 무용(발레)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예린(5살)과 태준(3살)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부청년 소속입니다.

윤병준/김정연 교우 가정. 윤병준 교우는 2001년에 미국으로 유학 차 오셨고 현재는 텍사스 A&M University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보스턴에 오셔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김정연 교우는 하버드대학(HSPH)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성(3살)과 하임(1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중앙 5 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은진 교우는 University of Iowa에서 피아노와 computer science를 전공하여 software engineer와 피아노 교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보스턴으로 오게 되었고, 남동구역 소속입니다.

김영란 교우는 주재원으로 2009년에 가족과 함께 텍사스 Austin으로 왔습니다. MCPHS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두 자녀 지수(24살)과 기석(26살)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3개월 전에 보스턴으로 왔습니다. 중서 2 구역 소속입니다.

원유건/양지연 교우 가정. 원유건 교우는 한국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일하시다 현재 Harvard Medical School(Orthopedics) 교환교수로 보스턴에 왔습니다. 양지연 교우는 미국에서 유학생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여성 약제서리 관련 개인 사업도 하셨습니다. 자녀 연재(2살)가 있으며, 부부청년부 소속입니다.

보스톤한인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2016년 10월 새교우 환영반



2016년 11월 새교우 환영반





홈리스 shelter 방문



쉐마의 밤



전교인 탁구대회



동네 도서관에서 발견한 60 년사



FOR MORE
PICTURES :
GOO . GL / Y j W
u r V

사물놀이 동우회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For more info · www.kcboston.org

READ ONLINE



goo.gl/3XIA9D